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만든다

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체류형 관광인프라 확대사업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 제시

글로벌 문화체육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주시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인프라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와 전주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다양한 국제 교류행사 추진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4대 추진방향은 '문화예술이 꽃피는 예술도시 조성, 관광도시 전주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후박제부터 조선왕조로 이어지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 앞서가는 체육행정으로 경제도시 전주 견인' 등이다. 전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과 문

화콘텐츠를 확충하고,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하고 '전주형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와 복합문화공간 '문화공관장 작당' 등을 연내 조성하고,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한다.

시는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모악산 힐링공간 조성, 전주천 일대 관광단지 조성' 등 혁신적인 거점 공간 조성 및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음식점 용도 규제 최소화,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여행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시는 '전주고도(古都) 지정, 후백제 역사규명, 전주부성·전라감영 복원, 유·무형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이 지역 경제와 산업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경쟁력 있는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을 창단하고, 대규모 국제·전국 대회를 개최해 체육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완산생 활체육공원 생활야구장,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등 스포츠 거점공간도 확충한다.

시는 오는 4월 26일 개막식을 시작

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30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행사로 연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3년은 동아시아문화도시와 전주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역사, 현대가 조화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앞장'

전주시, 전 시민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나서

'치매 걱정없는 안심도시 전주!'로 가기 위해 전주시민 대상으로한 치료비 지원을 전주시가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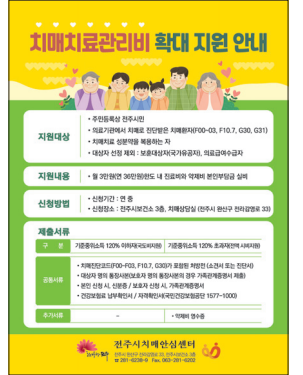
이에 전주시는 총 20억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시는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F10.7, G30)을 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매월 3만 원, 연간 3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지 못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제비 영수증(치매성분약 기재)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치매 환자 도움용품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인지재활 프



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인지재활교과 교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전주시 치매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2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 모든 대상자들이 행복한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승마장 이용 활성화 위해 강습 예약 기간 변경

전주시설공단, 노쇼 이용객 등 비효율적 운영 개선 위해 1주로 단축

전주승마장 효율적 운영 위해 전주 시설공단이 승마 강습 예약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9일 구대식 이사장은 다음달인 3월 1일부터는 강습일 1주 전부터 강습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단은 강습 예약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예약프로그램,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들어 강습 당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이용객들로 인해 소그름 강습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습

생 인원을 6명에서 4명(교관1 강습생4명)으로 축소해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나마 시 신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어백 안전조기 도입(시설공단 제공)했으며, 승마 레저 상해보험 가입(1년 기준)을 의무화 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공단은 지난해 9월 입문반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초급반, 중급반' 수준별 강습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만희 공원운영부장은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을 위해 승마 강습 예약 기간을 변경하게 됐다. 학생승마체험



전주승마장 효율적 운영 위해 전주시설공단이 승마 강습 예약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사진은 전주승마장에서 승마 강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습.

과 단체 강습 등을 통해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등 승마장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현장중심 청소행정·안전한 환경·위생관리 추진

전주시완산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주시 완산구가 신속한 청소행정과 함께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완산구는 올해 청소 및 환경, 위생관련 업무에 대해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지도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분야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9개 동 구역별로 325명의 청소인력과 132대의 청소차량을 배치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취약지 중점관리구역 7개소에 대해서는 1년 365일 상시 기동처리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단속 2개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총 234대를 총 동원하여 불법투기자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기로

했다. 특히,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 대상 정기점검과 함께 비산먼지 및 특장공차 사업장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이외 완산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등 운영 상태 관리 강화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위생분야에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과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한 위생관리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식품가공업소에 대해서는 3개분야 1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현지심사를 통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청소행정 및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여러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여 탄탄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전주시, 청소행정 혁신 위한 소통 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청소 관련 민원 처리 및 청소행정 혁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시청 청소지원과와 자원순환과, 완산·덕진구청 청소위생과 등 4개 부서 청소행정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청소 민원 접수 처리 및 불법투기 신규 시책 수행 방안 등 부서별 의견을 공유했다.

또 청소민원 관리시스템('AICC 보이소트')을 도입해 AI 상담을 통한 단순 민원 접수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 업무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

의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소행정 추진 간담회를 정례화해 청소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질적인 청소 민원 해결을 위한 내부 협조를 강화하고, 청소행정 혁신을 위해 민원 처리·불법투기 등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청소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청소행정 실무부서가 모여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각 청소행정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 함께 바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완산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집중 단속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완산구청은 오는 17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점검반 3명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여 완산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무단 대여 또는 무단 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동산 중개관련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불이익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작년 한해 118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1건, 고발조치 6건, 과태료부과 2건 등 총 9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7건에 대해서는 현지지정조치했다.

【김아람 기자

